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돌봄의 역할이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질 때, 비로소 '돌봄'이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가족의 안전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돌봄미'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증장애아동' 양육 가정 중에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렇지만, 올해(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본인부담비율 40%)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물론, 기존 소득기준 이하 가정은 종전과 같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34,000원	3,912,000원	5,034,000원
가구원 수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145,000원	7,229,000원	8,228,000원

보건복지부는 돌봄지원 대상을 기존 4천 명에서 8천 명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2022년 정규예산(약 48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된 돌봄지원시간(연 840시간) 또한 유지됩니다.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기준>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840시간 이내	연 840시간 초과 시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1,280원 (전액 자부담)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4,510원 (40%)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청방법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가무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가정에게 더욱 두터운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